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리마다 문경새재 호텔과 투자유해각서 체결.. 822억원 규모 '19~21년까지 2개동 추가 건축, 문경 최대 규모 호텔.. 75명 상시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우선채용, 식자재 등 지역 업체 우선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실	 사진별첨
② 경북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23개 기관건설협화건설사 건설경기 활성화 상생협약... 간담회 가져	도시계획과	 사진별첨
③ 이철우 도지사 문경 찾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구상 외미자네 청년몰 방문, 청년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문경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대표들과 지역현안 사항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자치행정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전국 최고 입증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 실천계획평가에서 최고 등급(SA) 획득	미래전략 기획단	
⑤ 이철우 도지사 사회적경제 청년리더(CEO)와 소통의 시간 가져 23일(화) 청년괴짜방 안동점, 청년리더(CEO) 50여명과 간담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과	 사진별첨
⑥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청소년 대사 경북의 정취에 흠뻑 빠져 포항 포스코, 경주 불국사, 도청 신청사 등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시설 견학	국제통상과	사진별첨
⑦ 경북도 구석구석 '체험관광콘텐츠' 상품화 나선다 경북의 숨겨진 매력적인 체험상품 발굴... 수익창출 위한 사업체 지원	관광정책과	
⑧ 아프리카 4개국 지역지도자 새마을운동 배우러 경북도청 방문 아프리카 4개국 16명의 지역지도자, 한국 성공경험의 상징 새마을운동에 관심	새마을봉사과	사진별첨
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 자랑스런 경북도민으로 새 출발~ 경북도대구시 전국 최초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국적 취득행사 협업 이철우 도지사, 국적취득 도민에 축하 및 격려 응원메시지	여성가족 정책관	사진별첨
⑩ 경북도, 정신건강 안전망 확대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연간 74억원 지원	보건정책과	
⑪ 이들의 정무실장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소중포럼 발대식 참석 소프트웨어(SW)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소방행정 자문위원회' 신입위원 위촉장 수여 - 이철우 도지사, '전국체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장	황중하		
			팀장	남기호	주무관	유승희
		연락처	054-880-4625			

경북도,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822억원 규모

- ‘19~21년까지 2개동 추가 건축, 문경 최대 규모 호텔.. 75명 상시 일자리 창출 -
- 지역인재 우선채용, 식자재 등 지역 업체 우선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경상북도는 23일(화) 문경시청 회의실에서 문경시, 라마다개발(주)와 822억원 규모의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라마다개발(주)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기존 호텔 인접부지 11,505㎡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822억원을 들여 객실 169실과 연회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 2개동을 추가 건축한다.

이번 투자로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은 객실 총 240실, 500명 규모의 그랜드블룸 연회장, 300명 규모의 중연회장 등 4개 세미나실, 온천사우나, 수영장, 가상현실(VR) 가상체험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어 문경 최대 규모의 호텔로 거듭나게 된다.

문경시는 이번 투자로 75명의 정규직 청년 및 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지역 업체를 통해 공급받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문경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드라마, 영화 촬영지 등 레저·체험식 관광자원이 다양하며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 연간 500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도시지만 성수기 객실 부족과 국군체육부대와 연계된 국내외 스포츠 비즈니스 등 니즈에 맞는 시설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2021년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더욱 가까워져 관광객은 더 늘어나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 숙박시설을 잘 갖추어야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은 문경에 처음 자리잡은 글로벌 브랜드 호텔로 이번 확장투자로 성수기 객실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관광객과 스포츠비즈니스 수요 등 문경을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와 문경시는 앞으로 기업을 위한 행정예 모든 역량을 모아 숙박 및 체험관광 시설 등 관광레저서비스산업을 적극 유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추진계획

I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1:40
- 장 소 : 문경시청 제2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 정도
 - 도지사, 경제부지사, 도의원, 문경시장, 부시장, 시의장, 시의원
 - 라마다개발(주) 임성빈 대표이사 등 관계자

[투 자 계 획]

- ◆ 투 자 자 : 라마다개발(주) 임성빈 대표이사
- ◆ 투 자 금 : 822억원(고용창출 : 75명) ◆ 투자기간 : 2019 ~ 2021(3년간)
- ◆ 투자지역 : 문경읍 상초리 288-75일원(11,505㎡)
- ◆ 투자내용 :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 증축(객실 169실, 연회장, 수영장 등)
- ◆ 경북도·문경시 지원사항 : 인·허가 행정지원

II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40~11:41	1'	▷ 개회 및 내빈소개	김학국 기업지원담당
11:41~11:56	5'	▷ 회사소개 및 투자계획 설명	라마다개발(주)
11:46~11:56	10'	▷ 인사말씀	임성빈대표, 도지사, 시장
11:56~11:58	2'	▷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11:58~12:00	2'	▷ 기념촬영 및 폐회	

III 투자계획

- 투자자 : 라마다개발(주) 임성빈대표(1965년생, 만53세)
- 투자내용 : 「라마다 문경세재」 호텔 증액 투자
 - 사업기간 : 2019. 4월 ~ 2021. 3월(3년간)
 - 투자규모 : 822억원(부지매입비 50억원, 건축비 772억원)
 - 위치 : 문경읍 상초리 288-75외 10필지(부지면적 11,505㎡)
 - 투자내용 : 지하2층, 지상3층 2동(호텔 169실)

시설명	연면적	규모	객실수	비고
총계	11,505㎡(3,480평)		169실	
2차 레지던스 호텔	1,776㎡(537평)	지하2층	64실	약10평형
3차 가족형 호텔	9,729㎡(2,943평)	지상3층	105실	약25평형

- “문경 최대 규모의 호텔 규모” 갖출 예정
 - 총250객실, 500명 대연회장, 300명 규모 중연회장, 소연회장 2개, 수영장, 온천장, VR 가상체험장 등

IV 지원사항

-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V 파급효과

- 호텔 운영관리를 위한 75명의 지역일자리 창출
- 가족단위, 온천 위락 등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관광복합공간 시설로 문경지역 호텔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홍보 및 지역 생산 특산품 판매유통에 기여

Ⅵ 위치도 및 주요시설



<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



< 라마다 문경새재 조감도 >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 성 자	과 장	김 정 수		
			팀 장	김영철	주무관	남성수
		연 락 처	054-880-3913			

경북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 23개 기관건설협회·건설사 건설경기 활성화 상생협약... 간담회 가져 -

경상북도는 23일(화)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 건설협회 및 대형건설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의 범위가 넓고 생산·고용 유발계수가 높아 지역은 물론, 국내 경기와 고용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정책기조가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서 사회안전 강화, 복지확대로 점차 바뀌면서 건설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민간건설 분야의 수주액도 급감하는 등 공공·민간 발주물량의 동반 감소로 지역 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고 나아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아 이번 협약식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주 공공기관, 지역 건설협회, 대형건설사들이 어려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협약식은 경북도의 건설산업 현황 및 지원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 상생협약 체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서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공사 시행 시 경북 지역업체의 참여율(원도급 수주)을 높이고 경북소재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율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북도에서도 국비와 자체 예산을 확대하고 도 차원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더욱 면밀히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기반 위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기관·단체·건설사 상생협약 및 간담회

건설경기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업체간 상생협약체결 및 간담회 개최**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5:00~16:10
- 장 소 : 도청 화랑실(254호 회의실)
- 참 석 : 50명 정도
 - 경 상 북 도 : 도지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 경상북도의회 : 의장
 - 주요공공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8개 기관
 - 대 형 건 설 사 :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 건설관련협회 : 종합·전문·기계설비·주택건설 경상북도회
 - 지역건설업체 : 건설관련 협회별 회원사
- 주요내용
 - 경상북도 건설산업 현황 및 지원대책
 - 건설경기 활성화 토론
 - 상생협약 체결 ※ **협약참여 : 23명**

□ 시간계획

시 간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5:05~15:10	5'	• 내빈 소개	
15:10~15:20	10'	• 인사말씀	도지사, 주요내빈
15:20~15:30	10'	• 경상북도 건설산업 현황 및 지원대책	
15:30~16:00	30'	•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	
16:00~16:10	10'	• 협약내용 설명 및 서명, 기념촬영	기관·협회·기업대표
16:10		• 폐회	

□ 업무협약 참여 기관 및 업체

구 분	대상기관 및 업체	비고
주요 공공기관 (8)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개발공사	
대형 건설사 (9)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쌍용건설(주)	
	동부건설(주)	
	(주)동양건설산업	
건설협회 (4)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정 진 환			
			팀 장	김승하	주무관	박경환	
		연 락 처	054-880-2826				

이철우 도지사 문경 찾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구상

- 오!미자네 청년몰 방문, 청년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 문경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대표들과 지역현안 사항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화) 문경시를 방문해 새바람 행복경북의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고운환 문경시장, 김인호 문경시의회 의장, 고우현, 박영서 경상북도 의회 의원, 문경시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대표 등 2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경북도정의 주요현안 설명에 이어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사업 확대, 동로면 벌재 터널공사, 낙후지역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농공단지 복지회관 신축,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 등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후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새재 라마다 호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경새재 라마다 호텔은 2018년 7월 개장했으며, 문경 최대 규모의 호텔로 거듭나기 위해 822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지하2층, 지상3층의 레지던스 호텔, 가족형 호텔을 추가 건립한다.

이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성공신화에 도전하고 있는 문경 중앙시장 오!미자네 청년몰을 찾아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청년몰과 전통시장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중앙시장의 오!미자네 청년몰에서 청년상인들과 함께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었다”면서 “현장 간담회에서 도민들과 함께 논의한 문경시 지역발전 방안과 고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도지사 시·군 현장 방문 계획 [문경시]

❖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한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시군 현장방문 실시

1 방문 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0:00 ~ 14:00
- 장 소 : 문경시 일원
- 대 상 : 200명 정도
 - (경북도) 도지사, 도의원, 담당 실국장 및 과장 등
 - (문경시) 시장·시의장, 시의원,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등
- 주요내용 : ①현장 소통 간담회
 - ②경상북도&문경새재라마다호텔 MOU
 - ③중앙시장 청년몰 현장 방문

2 세부 계획

시 간 별		내 용	비 고
10:00 ~ 11:30	90'	① 현장 소통 간담회	· 문경시청 대회의실 (문경시 당교로 225)
11:40 ~ 12:00	20'	② 경상북도&문경새재 라마다 호텔 MOU	· 문경시청 제2회의실 (문경시 당교로 225)
13:30 ~ 14:00	30'	③ 중앙시장 청년몰 현장 방문	· 중앙시장 청년몰 (문경시 중앙로 87)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성 자	단 장	김 성 학		
			팀 장	임휘승	주무관	심영수
		연 락 처	054-880-4513			

경북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전국 최고 입증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 실천계획평가에서 최고 등급(SA) 획득 -

경상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 최고등급(SA등급)(총점 90점 이상) : 경북도, 서울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전북도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10일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모니터링하여 분석한 1차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소명자료 2차 평가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다.

평가 항목은 ▲종합구성(비전·기대효과 등 11개 지표, 45점) ▲개별구성(연차별 추진계획 등 7개 지표, 20점) ▲주민소통(주민참여도 등 5개 지표, 20점) ▲웹소통(접근성 등 5개 지표, 15점) ▲공약일치도(선거공약 일치도, 통과/탈락<Pass/Fail>) 등 5개 분야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경북도는 공약의 기대효과, 명확성 등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했다.

특히, 종합구성 분야에서는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SWOT 분석)을 통해 경북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일자리, 아이, 관광, 농촌을 핵심으로 10대 분야 100개 단위사업의 실효성 있는 공약을 수립하였으며,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의 신규 사업을 발굴·구체화 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민선7기 비전과 목표, 공약 총괄, 재정운영 계획, 공약사항별 세부 실천계획, 도민소통 계획, 공약관리 계획을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취약한 재정구조, 청년 인구의 유출 등의 약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도지사 취임 전 여섯 번의 현장 토론회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 민선7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110여명의 도민으로 구성 된 ‘경북잡아위원회’ 활동, 공약 확정 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무작위 선발 된 50명의 ‘도민배심원단’ 활동 등 공약 수립부터 조정·평가·확정의 전 단계에 걸쳐 도민이 중심이 되어 경북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자 도정운영의 나침반”이라며

“이번 결과는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작성자	과장	김상희			
			팀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연락처	054-880-2613				

이철우 도지사, 사회적경제 청년리더(CEO)와 소통의 시간 가져

- 23일(화) 청년괴짜방 안동점, 청년리더(CEO) 50여명과 간담회 -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사회적경제 청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현장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23일(화) 청년괴짜방 안동점에서 경북의 5개 청년괴짜방 운영진과 사회적경제 청년리더(CEO) 등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청년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교육과 청년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배 청년리더(CEO)와 소통 및 정보교류의 차원에서 마련했다.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교육운영 및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개요>

- 사업주최 : 행정안전부/경상북도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2023년까지)
- 사업비(‘19년) : 117백만원(국비 59, 도비 58)
- 사업대상 : 고용청년 550명
- 사업내용
 - * 기본교육(필수) : 20시간, 권역별(총 3회) 및 지역별(미수료자)
 - * 심화교육(선택) : 6시간 이상, 분야별 순회교육(수요조사에 따른 희망자 교육)

행사 진행 및 버스킹 공연, 수제맥주 시음회 등은 모두 지역 청년이 스스로 기획·제작했으며 청년토크쇼를 통해 청년에게 닥친 취업, 창업, 결혼 등의 고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청년리더(CEO)들의

치열한 생각을 도지사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복 경상북도사회적경제청년총회 의장은 “청년에 대한 진정한 지원은 청년이 결코 혼자아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경북도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에 큰 희망을 느꼈다” 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사업 참여청년 전원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문화서비스 및 창조적 활동 지원을 위해 12월까지 지역 문화예술 공연, 청년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년문화파티, 경북과 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을 알게 되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면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면서 청년들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청년과 함께하는 경북 사회적경제 버스킹

- ❖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문화서비스 및 창조적 활동 지원을 통한 소속감 고취, 창의적 인재 육성 도모
-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네트워크 구축

개 요

- 일 시 : 2019. 4. 23(화) 17:30 ~ 20:00
- 장 소 : 청년괴짜방 안동점(안동시 태사길 29)
- 참석인원 : 50명 정도 ※ 임석관 : 도지사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청년CEO 등 30명
 - 청년괴짜방 운영진 및 당사자조직 20명
- 주요내용
 -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 지역 청년이 만드는 수제 맥주 페스티벌
 -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년토크쇼
 - 청년 기업가 소통·교류의 장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7:20~17:30	10'	• 행사안내 및 접수	
17:30~18:30	60'	• 청년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 지역청년이 만드는 수제 맥주 페스티벌	
18:30~19:00	30'	•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년토크쇼 - 청년 고민상담(취·창업, 결혼, 출산 등)	도지사
19:00~20:00	60'	• 청년 기업가 소통·교류의 장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교육운영 및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계획



- ❖ 전담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참여 청년의 통합적·포괄적 교육지원
- ❖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 네트워킹 참여를 통한 소속감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3월 ~ 12월
- 사업대상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고용청년 550명
- 사업내용
 - 기본교육(필수) : 20시간, 권역별(총 3회) 및 지역별(미수료자)
 - 심화교육(선택) : 6시간 이상, 분야별 순회교육
- 추진체계

경상북도	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종합상사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단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운영·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기업 모집·선발 • 사업점검 및 현황 관리 • 기본교육 지원(권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교육 전담 • 전담 교육매니저 운영 • 기본교육(지역별), 심화교육 전담(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년 및 기업 매칭 • 참여청년 및 기업 관리(권역별)

■ 추진시기 및 주요내용

기간	기본교육(필수)		심화교육(선택)			
	기본교육 I	기본교육 II	업무 역량강화	청년창업	사회적 경제	창의적 활동
3 ~ 4월	- 기본교육 (대규모 집체교육) 준비		- 심화교육 수요 파악(권역별 수행기관)			
						
5 ~ 12월	Step.1 연 1회(5월) - 권역별 집체(대규모) - 사업 최초 선발(채용청년) - 1박 2일, 20시간 · 사회적경제의 이해 등	Step.2 분기별 1회(지역별) - 지역별 집체(소규모) - 미수료 또는 중도선발 청년 - 1박 2일, 20시간 - 청년괴짜방 플랫폼 활용	Step.3 격월 1회(지역별 수요) - 지역별 집체(소규모) 20명 내외(희망자) - 심화과정 시행(청년 1명당 6시간 이상) · 수요기반 교육 커리큘럼 계획 및 강사편성 - 청년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2월	사업운영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 /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참고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세부내용


■ 사업목적

- 청년들의 개별 욕구(needs)에 맞는 문화 서비스 지원
- 청년을 위한 문화 자원 제공을 통한 창의적인 청년인재 육성
- 사회적경제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및 만족도 향상으로
이직 및 중도퇴사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안)

문화 여가지원	청년 문화파티 지원	사회적경제/공동체 선진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예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과 청년의 만남, “청년시대” ◆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 새로운 도전 “찾아가는 음악회” ◆ 플라잉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시대와 현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신개념 무대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루떼(Sal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 공연도 듣고 일석이조 “살루떼” ◆ 고기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을 복이 넘치는 “핵인싸들의 고기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 벽화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동화속 벽화 앞에서 “인생샷 한 컷” ◆ 포항 운하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날, 낭만을 즐기는 방법은? “포항과 함께” ◆ 괴산 자연드림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와 힐링이 만나는 하루 “소확행”

구분	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화 여가지원	국악예술단								
	오케스트라								
	플라잉공연								
청년문화 파티지원	살루떼								
	고기파티								
선진지 견학	통영 동피랑마을								
	포항 운하체험								
	괴산 자연드림파크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 성 자	과 장	박 노 선		
			팀 장	권기일	주무관	송지현
		연 락 처	054-880-2723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청소년 대사, 경북의 정취에 흠뻑 빠져

- 포항 포스코, 경주 불국사, 도청 신청사 등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시설 견학 -
- 미국 청소년에게 경북의 발전상 소개... 향후 경북과의 가교 역할 기대 -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경북도의 주요 산업, 문화, 관광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경북을 찾은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청소년 대사(Youth Ambassador of Korea Society)’ 들이 23일(화)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한-미 양국의 정책, 기업, 경제, 교육, 예술 등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고 매년 청소년 대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청소년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에 경북도를 찾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청소년 대사’ 일행은 뉴욕,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23명으로,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일정으로 전북, 부산, 울산, 경북, 서울 등 한국의 주요 지역별 산업경제와 문화관광 시설을 탐방한다.

방문단은 지난 22일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포항 포스코 견학에 이어 23일(화) 오전에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지역 세계문화유산을 답사하였으며, 오후에는 경북도청을 방문해 도청 관계자와 미국 청소년 대표단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박노선 경북도 국제통상과장은 “한-미 상호이해와 친선을 위한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 주요 문화재의 약 20%를 보유한 역사문화의 중심이자 산업화의 원동력인 경북에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발전상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美 코리아 소사이어티 청소년연수단 도 방문 계획

코리아 소사이어티 청소년 연수단의 도 방문을 통해 경북 전통문화 홍보 및 경북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개 요

- 일 시 : 2019. 4. 23.(화) 09:00~14:00
- 장 소 : 경주일원, 안동일원
- 연 수 단 : LA, 뉴욕지역 학생 및 인솔자 등 23명
- 주요내용
 - 세계문화유산 견학(불국사, 석굴암 등)을 통한 경북 문화 이해

□ 시간계획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12:00	180'	○ 세계문화유산 견학(석굴암, 불국사)	문화해설사
12:00~13:00	60'	○ 오 찬	경주 적의처
13:00 ~ 15:00	120'	○ 이 동(경주 → 도청)	
15:00 ~ 15:30	30'	○ 도청방문 환영식 및 투어 - 환영사, 도정홍보영상시청 등	
15:30 ~ 16:00	30'	○ 도청견학	문화해설사
16:00~16:30		○ 이 동(도청 → 풍산고등학교)	

※ 코리아 소사이어티

- ▶ 설립년도 : 1957년
- ▶ 본 부 : 미국 뉴욕
- ▶ 회 장 : 토마스 번(무디스 수석부사장 역임)
- ▶ 설립취지 :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한미 양국의 정책, 기업, 경제, 교육, 예술에 관해 전문성 있고 편견 없는 토론과 연구수행, 상호이해와 친선증진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과 장	김 문 환			
	연 락 처	작 성 자	팀 장	이종익	주무관	김진영
		054-880-3195				

경북도 구석구석 ‘체험관광콘텐츠’ 상품화 나선다

- 경북의 숨겨진 매력적인 체험상품 발굴... 수익창출 위한 사업체 지원 -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경북 곳곳의 ‘체험관광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표 아마추어 관광사업자(경북 스타관광호스트)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의 체험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 이색적인 콘텐츠 또는 취미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상품화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아마추어 관광인력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관광의 트렌드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독특한 체험으로 가득한 ‘나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콘텐츠 발굴부터 상품개발, 운영 및 판매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여행산업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민간기반 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상품 공급자에게는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매출증대와 인지도 확산이라는 혜택을,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신규 체험상품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23일(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상품을 공모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경북 도내 체험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을 통해 20여개 관광 상품을 선정, 경북 스타관광호스트로 지정하고 인증한다.

또한 전문가컨설팅 등 브랜딩 작업을 거쳐 국내·외 대표 온라인 기반 관광 플랫폼(OTA)인 에어비앤비, 클룩, 야놀자, 레저큐 등 다양한 채널들을 연계·판매할 예정이다.

*OTA : online travel agency로 온라인 여행시장 플랫폼을 뜻한다.

아울러 지역민을 대상으로 1박2일 아이디어 업(UP) 해커톤(Hackathon) 대회, 경북관광의 별을 찾는 스타관광호스트 선발대회, 경북관광상품 공모전, 온라인 기반 관광 플랫폼(OTA)과의 네트워킹 간담회 등을 열고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체험상품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쌓고,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작성자	과장	이병월		
			팀장	이승택	주무관	이진희
		연락처	054-880-2883			

아프리카 4개국 지역지도자 새마을운동 배우리 경북도청 방문

- 아프리카 4개국 16명의 지역지도자, 한국 성공경험의 상징 새마을운동에 관심 -

경상북도는 23일(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아프리카 지방 행정역량강화과정’에 연수중인 아프리카 4개국 지역지도자 16명이 도청을 방문해 새마을운동 및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연수생은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세네갈에서 온 지방단체장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 고위공무원 등 자국의 지역지도자들이다.

이날 연수생들은 도정현황을 청취하고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고의 지역 개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에 와서 매우 기쁘며 자국에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을 거울삼아 눈부신 농촌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성공경험으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고 도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은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했으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구촌 가난 극복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아프리카 지방행정역량강화과정』 연수생 도청 방문

방문 개요

- 일 시 : 2019. 4.23.(화) 13:30 ~ 15:30
- 장 소 : 도청 다목적홀
- 인 원 : 20명(아프리카 4국 16명, 행안부 관계자 4명)
※ 카메룬, 코트다부아르, DR콩고, 세네갈 정부관계자(시장, 정부관계자 등)
- 방문목적 : 도정 현황 청취, 새마을세계화 사업 소개 등

시간계획(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35	'5	도청 홍보영상	
13:35~14:35	'60	새마을세계화사업 소개	이순향
14:35~14:45	'10	인사 말씀, 기념품 증정	행정부지사
14:45~14:50	'5	기념 촬영	행정부지사
14:50~15:30	'40	신도청 투어	도청 가이드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조 광 래		
			팀 장	김형현	주무관	김민영
		연락처	054-880-4550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 자랑스런 경북도민으로 새 출발~

- 경북도대구시 전국 최초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국적 취득행사 협업 -
 - 이철우 도지사, 국적취득 도민에 축하 및 격려 응원메시지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3일(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관에서 열린 ‘4회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 국적을 취득해 시·도민이 된 사람에게 도지사·시장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국적 취득자가 국적 증서를 수여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이후 네 번째 맞는 행사로, 새롭게 국적을 취득한 100여명(경북 58, 대구 42)*과 내·외빈, 국적취득자 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국적취득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 ‘19년 대구·경북 국적취득자 : 301명(경북 187명, 대구 114명)

특히 이날 행사는 기존 행사와 달리 국적 취득자들에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영상메시지와 축전을 통해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전달하여 새로운 시·도민으로 거듭남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본준 소장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경북도 도민으로 다시 출발하는 국적 취득자들에게 “새로운 도민이 되는 빛나는 선택과 미래의 도전을 응원하며 경북도는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세계 속의 경북을 만드는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대구시 간 상생협력 강화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으로 이뤄진 첫 사례로 시·도민으로 거듭남을 축하하는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경북도와 대구시는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국적증서 수여식

- ◇ 금년부터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법무부)
- ◇ 대구시와 협력사업으로 국적 취득자 시·도지사 축하영상 및 축전 제작 전달(전국 최초로 시·도 합동 축전)

행사 개요

- 배 경 : 귀화자에게 한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제공
* 근거 : 국적법 일부 개정(2017.12.19.), 시행(2018.12.20.)
- 일 시 : 2019. 4. 23(화) 14:00 ~ 15:00
※ 매월 1회(마지막 주) 개최
-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문화관)
- 인 원 : 66명 정도(대구·경북 관내 귀화자)
- 주요내용 : 국민선서, 증서수여, 대통령 축하말씀(영상), 축하공연 등
- 주최/주관 :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도지사 축전 전달

※ 전국 최초

- 목 적 : 국적취득으로 새로운 도민으로 거듭남을 환영·축하
 - 법무부 및 대구시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 내 용
 - 도지사 축전 전달
 - 도지사 축하말씀 동영상
- 방 법 : 대구시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공동추진
 - 전국 최초로 시·도민 공동 축하영상 및 축전 제공
 - 홍보강화 방안으로 경북과 대구시 공동 보도자료 배포
- 기관별 협력사항
 - 법무부(대구) : 국적 취득자 현황 등 정보제공
 - 경북도·대구시 : 시·도지사 축하영상 제작, 축전 작성

 경상북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과 장	김 영 길		
	【19. 4. 23(화)】		작 성 자	팀 장	이 민 자	담당자 김 정 미
			연 락 처	054-880-3804		

경북도, 정신건강 안전망 확대 구축한다

- 지난해부터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연간 74억원 지원 -
- 경찰·정신의료기관·읍면동 등 유관기관 안전망 구축 -

경상북도는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과 진료 중 환자에 의해 주치의가 사망하는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많아 정신건강 안전망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8개 시군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에는 운영비를 지난해 대비 22억원 증액, 총 24개소에 7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올해에만 60여명을 충원 중에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도 2개소 추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20개소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돕고 있다.

경북도는 이처럼 대부분의 시군에 센터와 시설들이 설치되고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충원됨에 따라,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져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조기 발견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도 경찰·정신의료기관·읍면동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아울러 ▲정신건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톡톡」 ▲정신질환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리스타트(Re:Start)」 ▲생애주기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마음성장학교」, 대학생 「정신건강박람회」, 노년기 「마음건강
백세」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23개 시군과 함께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개소한 12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조속한
시일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완료하고,
신규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종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량강화와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공고히 해 정신
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도민들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3(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054-880-2476			

이달희 정무실장,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소중포럼 발대식 참석 - 소프트웨어(SW)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은 지난 2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소중(지역이 소프트웨어 융합의 중심)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지역소중포럼(공동대표 김성태·변재일·김상철)은 국회와 지역,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별 핵심산업 관련 지자체, 기업, 기관 및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SW)융합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역소중포럼 발대식에서 소프트웨어(SW)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소프트웨어(SW)융합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경북도는 경북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경북빅데이터센터, 경상북도블록체인센터 및 인공지능센터 등을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SW)융합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내 소프트웨어(SW)융합 클러스터 2.0, 지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제작거점센터 구축, 지역소프트웨어(SW)교육센터 구축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은 “경북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험, 청년 일자리 부족, 주요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제조산업 중심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소프트웨어(SW)융합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소방행정 자문위원회’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 24일(수)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소방행정 자문위원회 신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 이철우 도지사, ‘전국체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 24일(수)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